

월요광장



김경란  
광주여대 유아교육과 교수

예로부터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의 기를 살려주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들은 자녀를 키울 때 아이의 기를 살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기를 살려준다’는 것은 아이를 ‘존중’한다는 것인데 간혹 ‘아이의 뜻을 모두 받아주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인지 우리 주변에서는 아이가 ‘제멋대로 하도록 허용’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뜨거운 음식이 오가는 식탁에서 이리 저리 뛰어다니는 어린 아이를 보면서 모든 사람이 아이의 안전이 염려스럽지만 뛰는 아이에게 주의를 줄 수 있는 어른은 없습니다. 낫의 아이에게 ‘뛰어다니면 뜨거운 음식이 있어서 다칠까봐 걱정되니까, 앉아서 있어야 해!’라고 말한다면 아이는 말을

아이 ‘기 살리기’는 ‘무조건 허용’과는 다릅니다

들겠지만 문제는 어떤 부모도 자신의 아이에게 지적하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기분좋아할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들은 절대 다른 사람이 자신의 아이에게 기를 꺾는 이야기를 해서 안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숫자에 관심이 많았던 아이가 엘리베이터에서 모든 층의 버튼을 누르는데도 그저 아이의 기를 살려주고자 사랑스러운 눈길로 아이를 바라볼 뿐입니다. “이렇게 모든 층의 버튼을 다 누르면 올라가는데 너무 많이 시간이 걸리고, 다른 사람들이 탈 수 없게 되니까 하지 말자”라고 용기 있게 말 할 수 있는 이웃주민 역시 없습니다.

중·고등학생이 된 자녀는 공부해야 한다는 이유 하나만 있으면 가족행사에도 일찍 참여하지 않는 특권을 부여해주고, 모든 일에 “너는 공부만 하면 돼!”라고 말해 줍니다. 무조건 아이가 원하는 일이라면 ‘아이의 기를 살려주어야 한다’는 말을 믿고 아이가 타인은 물론,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데 필요한 근본적인 가르침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를 존중한다는 것은 아이의 잘못된 행동을 옳게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고 잘못한 행동을 무조건 너그럽게 눈감아주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진정으로 아이를 존중

한다는 것은 함께 살아가기 위한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은 자기가 어렵더라도 타인을 위해 지켜야한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아이 자신도 타인에게 배려 받을 수 있다는 지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한 밤중에 뛰는 아이에게 “지금 동생이랑 노는 게 재미있구나! 그런데 밤에 너희가 이렇게 거실에서 뛰면 아래층 아주머니가 잠들기 어려우시니 내일 낮에 놀이터에 가서 뛰어놀자.”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 하도록 말해주어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 할아버지 생신인데 할아버지께서 우리 정운이를 많이 보고 싶어하실 거야. 학교 숙제가 많더라도 미리 계획을 세워서 잠시라도 할아버지 댁에 꼭 다녀오자”라고 알려준다면 아이들은 세상을 살아 나가면서 하고 싶지만 참고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고, 학교일로 많이 바쁘지만 가족들과 함께 자신이 참여해야 할 일도 있다는 것을 배우면서 자라게 됩니다.

부모가 아이의 의견을 존중한다고 해서 예방주사를 맞기 싫어하는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 게임을 즐기는 아이에게 숙제는 하지 않고 좋아하는 인터넷 게임을 하루 종일 즐기라고 할 수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소중한 아이이기 에 다른 사람과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한 방법

을 부모님은 반드시 가르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의 기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행동 중에서 아이가 표현하는 감정을 인정 해주시면 됩니다. 집에 비슷한 장난감이 있는데 때를 부리는 아이에게 “저 로봇을 정말 갖고 싶구나!”, 인터넷 게임을 하느라 숙제를 미루는 아이에게 “숙제는 하기 싫고 인터넷 게임을 더 하고 싶구나”라고 아이의 마음을 인정하고 알아주는 것입니다.

아이게 로봇을 갖고 싶어 울며 때를 쓰고 있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멋있다고 또 갖고 싶어서 때를 부리니?” 라고 아이의 감정을 부정하거나 하루 종일 숙제를 하지 않고 인터넷 게임을 하는 아이에게 “집에 있는 컴퓨터를 모두 없애버려야겠어.”라면서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다면 자녀는 부모에게 마음의 문을 굳게 닫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아이의 마음에 맞장구를 쳐주어 아이의 기를 살려주십시오. 자녀의 기를 살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생각에 공감해주는 ‘부모님의 말 한마디’입니다. 그리고 타인과 함께 살아가기 위한 규칙은 꼭 지킬 수 있도록 가르쳐주어 타인과 더불어 행복한 삶을 사는 지혜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社說

‘시한부 직책’ 정 총리 사태 수습 매진해야

정홍원 국무총리가 27일 세월호 참사에 따른 책임을 지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정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고가 발생하기 전 예방에서부터 사고 이후의 초동대응과 수습과정에 서 많은 문제들을 제때에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고 사죄드리는 길이라는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진작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자 했으나 우선은 사고 수습이 급선무이고,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판단했다.”며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제가 자리를 지킴으로써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생각에 사퇴할 것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의 사의 표명은 그의 말대로 책임 있는 자세라는 점에서 일단 수긍이 간다. 그러나 야당의 지적처럼 난국을 타개해야 할 내각의 수장이 홀로 사퇴를 선언한 것은 꼭 모양새가 좋지 않

다. 구조와 수습이 진행 중인 시점에 총리가 자리를 비우는 게 진정성이 있는 지 의문이 들기 때문이다.

정 총리가 ‘국정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다’고 밝힌 부분도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해석이 가능해 적절한 말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또 현 시점에서 국회의 후임 총리 인준을 위한 인사청문회도 쉽지 않아 장기 공석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우선 총력을 다해 이 사태를 수습하고, 그다음에 국민의 뜻에 따르는 게 책임을 다하는 진실한 자세가 아닌가.

그러나 정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사고 수습 이후를 전제로 사표를 수리하기로 한 만큼 열과 성을 다해 난제를 풀어가야 한다. 박 대통령 역시 사태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최근 잇따라 물의를 빚은 청와대 수석 이상과 내각에 대해 전면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 국민에 대한 사과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전남 노후 여객선 구조변경도 전면 점검을

청해진해운 측이 일본의 한 선사로부터 세월호 등 노후 여객선 2척을 할값에 사들여 객실 등에 대한 대규모 증설을 실시한 반면, 일본의 해당 선사는 같은 크기의 여객선을 다시 건조하면서 승객 정원 등을 되래 축소한 것으로 광주일보 취재 결과 드러났다. 청해진해운은 수익성만 생각한 데 반해 일본 선사는 안전성을 더욱 강화한 것이다.

일본 해운업체 마루에페리는 지난 1994년부터 18년간 운항한 나미노우에를 청해진해운에 판 뒤 같은 규모의 새 여객선을 건조해 가지고자 항로에 투입했다. 새 여객선은 기존 선박보다 폭을 2m 넓히고 승객 정원은 804명에서 707명으로, 차량 적재 용량은 180대에서 130대로 줄였으며 좌우 흔들림 방지 장치까지 설치했다.

반면 기존 나미노우에를 인수한 청해진해운은 배 이름을 세월호로 변경한 뒤 승객 정원을 921명으로 늘려 4층 객실을 증설하고 5층은 강당 등으로 개조

했다. 이로 인해 선박의 무게중심이 높아지는 바람에 복원성이 크게 떨어졌다. 청해진해운은 또 이 일본 선사로부터 페리 아케보노(현 오하마나호·6322t급)도 들여와 여객 정원을 695명에서 937명으로 늘리고 컨테이너 적재량도 109개에서 180개로 확대해 인천~제주 항로에 투입했다.

노후 여객선의 객실을 증축하고 화물 적재용량을 늘리는 등 마구잡이로 구조를 변경하면 전체적인 균형이 무너져 안전성이 크게 떨어질 것임은 불문가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선박검사 체계는 부실하기만 했다.

목포항과 여수항에서 운항하는 전남 지역 연안여객선도 91척 가운데 선령 20년 이상인 선박이 23척이나 된다고 한다. 4척 가운데 1척 꼴이다. 세월호 참사 같은 비극이 더 이상 재발하지 않게 하려면 노후 선박들의 무단 증축과 구조 변경에 대한 당국의 철저한 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다.

법조칼럼

법전 속에서 찾은 청소년의 의미



최승환  
광주지검 검사

오늘은 오전부터 검사실이 북적거린다. 지난주 기록검토를 마친 소년 사건 중 조건부 기소유에 처분이나 기소유에 처분을 할 청소년들을 대거 불러기 때문이다. 이들은 대체로 초범이고 사안이 크게 중하지 않아, 예전 같으면 마을 어른들이 한껏 호통을 쳐서 제자리를 돌려놓았을 아이들이다.

어른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과연 이것이 죄가 되는가 하는 문제부터 고심하게 되는 어려운 사건들이 많다. 복잡한 계약서와 거래관계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다 어느 사연가 처음 계획이 어긋난 후 상호 간에 사기와 횡령으로 고소를 하고, 내가 본 손해를 책임지라고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을 저지르고, 가끔은 관계 공무원이 비리를 저질렀다고 제보를 한다.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다 싶으면 거짓말을 해대는 터에 진실을 밝히기 쉽지는 않다.

다 큰 어른들이 벌인 복잡한 사건들에 비하여 아이들이 저지르는 범죄는 사건 자체는 복잡하지 않다. 학교 안팎에서 벌어지는 각종의 폭력 사건, 소위 ‘뺑 뜯기’라고 불리는 공갈사건, 인터넷에서 중고 물품을 팔겠다고 거짓말을 한 사기 사건, 길가에 세워둔 자전거를 훔쳐 타고 달아난 절도 사건, 남자가 아이들이라면 종종 있는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사건 등이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들을 부르는 날에는 아침부터 머릿속이 복잡해진다. 어른들의 사건과 달리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먼저 범죄전력을 확인한다. 아이들의 범죄는 학교다니고 있을 때 저질렀는지 아니면 자퇴를 하고 나서 저질렀는지 확인해봐야 하고, 특정기간에 범죄가 집중되어 있다면 기간에 부모가 이혼을 하는 등 가정사에 어려움이 있어 영향을 미쳤는지, 혹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도 전학을 가게 된 다음부

터 나쁜 짓을 하고 다닌 것인지 살펴봐야 한다.

법정의 상습성이 있는지를 볼 때도 주의를 요한다. 말 그대로 질풍노도의 시기인 사춘기 아이들은 어른들과는 다른 시간 감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가도 1년이 조금 지나 사기 범죄를 저지른다던 범죄 경향이 아닌 새로운 환경과 친구의 영향일 가능성이 많다. 그런 경우에는 폭력 범죄만을, 또는 사기 범죄만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아이보다 개선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본다.

공범 속에서 주범을 가려내야 한다. 청소년은 대부분 몰려다니면서 범죄를 저지르는데 그 중 꼭 한 명씩 범죄를 전파하는 아이가 있다. 핀셋으로 집어내듯 그 아이만은 따로 처분하지 않으면 불공평하다. 그리고 가끔은 능력이 부족하거나 약의 있는 어른들이 아이를 망쳐놓는 경우가 있어 오토바이에게만 책임을 지을 수 없는 사정도 허다하다. 이렇듯 소년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도 범죄의 내용 외에도 그 배경에 대해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양한 요소를 고려한 다음에 정하는 소

년범에 대한 처분은 성인에 대한 처분에 비해 종류가 많고 그 폭이 넓다.

아이들은 특성상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통한 개선의 여지가 어른들에 비해 크다. 그래서 사안이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중하면 회복된 경우에는 기소유예, 조건부 기소유예, 보호관찰 등의 처분이 내리진다.

때론 과감한 처분을 해야 할 때가 있다. 피해자에게 평생 씻기 어려운 상처를 주는 범죄는 엄중히 처분해야하기 때문에 구속 기소하거나 소년원에 보내는 처분을 한다. 다만, 소년원에 수용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소년원에서 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기 때문에 어른들과는 처우가 다르다.

소년에게 이처럼 많은 요소를 고려한 뒤 다양한 처분을 내리는 배경에는 가족의 따뜻한 사랑, 세상의 관심과 배려를 통해 성장하고 있는 아이들이 올바른 길을 걷기를 바라는 어른들의 기대가 있다. 그래서 소년법 제1조는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국법 중 가장 엄중해야 할 형사법조차도 청소년은 ‘희망’이라고 분명하게 정의 내린다.

기고

영명(英明)했던 제자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



문종민  
광주시교육청 체육복지건강과장

부끄럽다. 세계 해운사의 가장 수치스러운 사건이 일어난 우리나라가 부끄럽다. 도망쳐 나와 생명을 구할한 선장의 변명이 부끄럽고, 이리 저리 책임을 떠넘기는 식상한 행태를 또한 부끄럽다. 좀처럼 인정하기 싫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아직은 후진국이구나!’ 하는 한탄이 겹을 짓고 그래서 하늘도 땅도 온 세상이 울고 법회버렸다.

그런가 하면 살았다는 죄책감으로 목숨을 끊어 수종의 제자들에게 되 달랠간 선생님에게서도, 평생 공부만 하다 겨우 임용시험에 합격해 비로소 교사의 꿈을 펼치려던 새내기 선생님은 사랑하는 반원들과 끝까지 함께 하고 있으며, 박봉이지만 마지막까지 배를 사수하며 비굴한 선장을 대신한다 채 피

지 못하고 떠나간 여 승무원이 있어 가슴 뭉클하다. 자신의 구명동의를 던져주고 무자비한 세상을 떠난 순결하기만 한 영혼은 어쩌면 이기적이고 열지않은 어른들에게 복수를 하고 떠난 것은 아닐까? 산자들은 부끄러워해야 한다. 이들의 생명을 강요한 무소불위의 자들은 무릎 꿇어야 한다.

밤하늘에 떠 있는 조명탄이 아무리 빛을 발해도 바다는 어둡기만 하고 구조선들이 종종대고 있지만 하릴없기는 마찬가지다. 속수무책인 현실이 서럽다. 이런 상황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일인 것인가?

항구 끝 젖은 시멘트 바닥에 후들거리는 다리를 겨우 붙이고 울부짖는 엄마의 오열은 속절없으니, 기대는 절망의 나락이고 무겁게 치밀어 오르는 슬픔을 참노니 목장이 아파온다.

‘영원히 변치 않을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의 사랑 안에 있을 텐데/ 수없이 많은 눈물 속에 우리는 헤어지지만/ 여전히 모두가 계속 살기를 바라요/ 하지만 나는 영원한 사랑을 믿어요/ 그리고 다시 만날 우리의 운명을요/ 견딜 수 없는 아픔을 느끼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당신을 사랑하는 일뿐이에요’

‘섬머 스노(Summer Snow)’란 노랫말이다. 영원히 변치 않을 편이가 있다면 정녕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일 것이다. 숲 속 수 없을 정도로 북받치는 서러움이지만 다시 만날 운명을 믿기에 고통을 견디고 기다리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외치는 것이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무력감에 이어서 체념을 강요하는 이 세상이 참으로 밋밋하고 비통하거나 진도 앞바다가 여물 바다 속에 눈처럼 내리는 하얀 부유물을 오뎅이 볼 수 있는 위로고 맑고 따스했으면 뒤편 달려왔을까. 그랬어도 어쩔 수 없다는 말은 여전히 유효했을 것만 같다.

‘당신의 아름다운 모습이 덧없이 사라진 다 해도/ 나의 사랑은 푸른 넝쿨처럼/ 당신을 지키며 살아가거나/ 세월은 그대를 더욱 사랑스럽게 할 뿐/ 그리고 언제까지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해바라기가 노을 지는 그의 태양을 바라보는 모습은 똑 같습니다/ 새벽 아침 떠오를 때까지’

‘토마스 무어’의 시 ‘믿어주세요, 그 모든 것들이 변할지라도’의 일부이다. 생때 같은 자식을 떠나보낸 엄마는 말한다. 내가 너를 인태하던 처음처럼 비록 태양이 서쪽 산허리에 걸린다 하더라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너를 사랑하면서 기억할 것이라고.

‘카카오 스토리’에서 제자들의 대화를 엿듣다 그만 숨이 막히고 말았다. 수십 년 전 제자의 이름과 함께 그의 딸이 희생되었다는 내용이오 제자들의 애도의 댓글이 이어졌다. 영명하고 착하기만 했던 그 제자가 가끔은 궁금했는데 그 궁금증을 이렇게 풀어야 하구나 약속하기만 했다.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그의 아픔을 어렴풋이 짐작은 할 수 있었지만 어찌 우리가 감히 범접이나 할겠는가? 그동안 잘 살고 있었을까. 행복했을까. 어렵게 살았다면 더 가슴 아플 일이다. 그래도 다 큰 자식을 먼저 보았으니 이제 그런 걱정은 무질했다. 제야무리 세월이 가도 아픔을 간직할 가슴이 온통 시커멓게 타버렸을 터이니 피안(彼岸)은 무상(無常)일 뿐이고 그저 그 뒤안길에서 서성일 뿐이리라.

안타까운 제자여! 또 또한 어쩔 수 없는 선행으로서 위로할 말 대신 위 두 곡의 노래를 들려주고 싶다. 혹여 널 더 힘들게 하는 곡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흘러 잊겨버린 네 딸이 미칠 듯이 보고 싶을 때 들었으면 좋겠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無 等 鼓**

미국 제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은 대통령 취임을 보름쯤 앞둔 1828년 12월 22일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는 자신의 집 ‘에르미타주’에서 부인 레이첼을 잃었다. 레이첼의 사망 원인은 우울증이 었다.

잭슨은 6대 대통령인 존 퀸시 애덤스와 치열한 네거티브 선거전을 치렀다. 애덤스는 레이첼이 전 남편과의 법적 이혼철차도 마무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잭슨과 재혼했다면서 ‘요부’ ‘이중결혼’ 이란 원색적인 단어로 공격했다. 레이첼은 이런 비난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우울증을 앓게 됐고 죽음에 이르게 됐다.

레이첼을 각별하게 사랑한 잭슨은 1829년 3월 4일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 목련나무의 싹을 가져와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 심었다. 잭슨은 백악관에서 8년 사는 동안 이 목련을 보면서 부인을 추억했다. 이 때부터 ‘잭슨 목련(Jackson Magnolia)’이란 이름을 얻은 이 나무는 사랑하는 이를 잃은 사람에 대한 위로와 봄마다 다시 피어나는 부활의 뜻을 담게 됐다.

역대 대통령들은 잭슨 목련을 유난히

아끼고 사랑해 백악관을 떠날 때 분양을 받아 갔다. 레이건 대통령과 린든 존슨 대통령은 부인 버드 존슨은 잭슨 목련의 싹을 잘라 퇴임 후 자신의 집에 가져 갔다.

잭슨 목련의 인기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로 퍼져 백악관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이 나무를 배경으로 사진찍는 것을 즐겼다. 1928년부터 60년 동안 20달러 지폐의 뒷면을 장식하기도 했다.

내슈빌에 있던 원래 잭슨 목련은 1998년 토네이도에 의해 망가져 버렸지만 백악관의 잭슨 목련에서 싹을 틔워 다시 고향 집을 지키게 됐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의 최대 피해자인 안산 단원과 교정에 잭슨 목련이 심어졌다. 25~26일 한국을 방문한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단원과 학생들의 회생을 기리기 위해 기증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목련나무는 아름다움을 뜻하고 매년 봄마다 새로 피는 부활을 의미한다”며 애도를 표했다.

비록 노란 리본의 기적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학생들은 하얀 목련을 통해 봄마다 우리 가슴에 피어날 것이다.

/장필수 정치부장 bungy@kwangju.co.kr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b>光 州 日 報</b>		<b>The Kwangju Ilbo</b>	
사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申港樂</b> 편집국장 <b>奇賢鎬</b>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b>광고문의 062-227-9600</b>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치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918)	체육부 2200-69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